

“전학오면 집 드립니다”...시골학교의 파격 제안

전교생 27명 화순 아산초, 올 입학생도 단 2명 통·폐합 위기
내년 주택 무상임대 소식에 수도권 등 전학상담 전화 줄이어

학생수 절벽에 시달리고 있는 화순의 한 농촌학교가 다른 지역에서 전학생 가족에게 집을 무상으로 빌려주겠다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화순군 북면 백아산 기슭에 위치한 아산초등학교가 학생수 확충 차원에서 전학생 가정을 위한 주택을 지난달 착공, 조만간 완공할 예정이다.

빈 관사를 철거한 뒤 66㎡ 규모의 단층 건물 2가구를 신축했다.

철거비 등은 화순교육지원청이 부담했고, 2억8000만원에 이르는 건축비는 화순군이 지원했다.

이 학교 김경순 교장의 제안에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응답한 것이다.

광주에서 유치원생과 초등생 쌍둥이를 둔 가족이 이미 이사를 예약한 상태다.

아산초는 화순읍에서 35~40km, 승용차로 50분 가까이 걸리고 전교생이 27명

에 불과한 소규모 시골학교다. 올해 신입생은 단 2명에 불과하다. 5년만에 20% 수준으로 줄었다. 때문에 늘 존폐 위기고, 통폐합 대상 0순위로 꼽혔다.

이같은 불리한 교육 여건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광주, 순천 등 도시에서 전학상담 전화는 끊이지 않고 있다. 피팔리는 입시와 성적 중심 경쟁에서 벗어나 자연과 더불어 친환경적 인성 중심 특화교육을 바라는 학부모들이 늘어나면서부터다.

학교 측도 이를 존중해 천연잔디를 깔고 전교생들에게 태블릿PC를 나눠주는가 하면 개인별 특화교육에도 교육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학교 분위기에 매료돼 전학을 원하는 학부모들이 가장 큰 걸림돌로 주택 문제를 고민하자 학교 측은 관사를 뜯어 고쳐 무상제공하는 파격적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학교 측은 “집 문제가 풀리면 전학도 가



화순군 북면 백아산 기슭에 위치한 아산초등학교. 전교생이 27명에 불과한 소규모 시골학교로 통·폐합 위기에 처한 상태다.

능하겠다는 판단에 무상 주택을 추진하게 됐다”며 “시골에도 신선부부나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산초는 지난해부터 4년간 전남형 혁신

신학교인 ‘무지개학교’로 지정된 학교로 100대 교육과정 최우수 학교로 선정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을 받기도 했다.

2022년에는 개교 100년을 맞는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

장성 황룡면 ‘땅꺼짐 현상’ 재조사 요구

주민들 “자연현상 추론 기존 조사결과 신뢰할 수 없다”

장성군 황룡면 고려시멘트 인근 농경지에서 수년간 반복된 땅 꺼짐(싱크홀) 현상의 원인과 안전성 규명 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민들이 요구했다.

장성군 등에 따르면 전남도·장성군·주민·고려시멘트로 이뤄진 싱크홀 원인 규명을 위한 민·관·사협의회가 지난 12일 주체 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해산했다.

주민 측은 싱크홀이 석회석 채굴 광산 개발과 관련 없는 자연현상이라는 기존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재조사를 요구했다.

정부가 자체 조사하거나 믿을 수 있는 제3의 기관을 선정해 싱크홀 원인과 안전성을 규명해달라고 주민 측은 요구했다.

싱크홀 현상이 광산 개발 때문이라는 재조사 결과가 나오면 고려시멘트가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조건도 함께 제시했다.

민관사협의회 의뢰로 조사에 나섰던 전남대학교 해외자원개발연구소는 진흙이나 물로 차 있던 석회암층 땅속 공간이 지하 수위가 낮아지면서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내렸다.

싱크홀 현상은 수백 년 이상 이어졌으나 광산 개발을 기점으로 새삼 주목받았을 것이라고 전남대 연구소는 추론했다.

주민들이 이러한 연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재조사를 요구하면서 싱크홀 원인과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다.

민관사협의회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전남도가 검토하고 있다”며 “재조사에 들어갈지 또 다른 협의체를 구성할지 지금은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호남고속철도가 가로지르는 장성군 황룡면 와룡리 농경지에서는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일곱 차례 땅 꺼짐이 발생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장성 황룡면 폐차장 도로변에 폐차 무단 방치

인근 주민 “교통사고·환경오염 위험 높아 단속해달라”

장성군 황룡면에 입주한 A폐차장이 수년간 수십대의 폐 차량을 도로변에 방치하고 있어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사진>

장성군에 따르면 이곳 폐차장이 처리를 완료했거나 예정인 대형 폐 차량을 도로변에 버섯이 방치해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고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아 지도·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오래된 폐 차량의 부속품에서 흘러나온 오일 등도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어 사고 발생의 위험도 높다.

특히 빗물과 함께 도로와 하천에 흘러든 유해물은 하천과 토양을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자칫 화재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인근 주민들은 폐차량을 도로변에 방치하는 것은 보기에조차 좋지 않을 뿐 아니라 토양과 수질오염으로 인한 주민피해도 상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 B씨는 “돈 벌기에 급급해 주위 환경이나 안전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폐 차량을 방치하거나 연료 등 환경에 해를 끼치는 물질이 배출되는 일이 없도록 엄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성군 관계자는 “해당부서에서 현장을 찾아 실태를 파악하고 주의를 준 상태”라며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상무대 입교 교육생 대상 전입신고 신속 처리

장성군 ‘찾아가는 전입신고팀’ 원스톱서비스

“장성군민임을 신고 합니다!”

장성군이 상무대에 입교하는 대위 교육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입신고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2019년에만 총 14차례 운영됐으며 이번이 올해의 마지막 일정이다.<사진>

현행 주민등록관련법상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긴 사람은 14일 이내 관할지역에 변경된 주소를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상무대 교육생들의 경우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거나 여건 상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워 전입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많다.

이에따라 군은 ‘찾아가는 전입신고팀’

을 운영해 장병들의 전입신고를 돕고 있다.

‘원스톱(one-stop)’ 행정서비스에 대한 교육생들의 호평이 높다.

찾아가는 전입신고팀이 교육생으로부터 신고서를 접수받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하면 읍·면에서 일괄적으로 신고를 수리하는 것은 물론 6개월 이상 장성에 거주할 경우 신청 가능한 전입장려금신청도 현장에서 접수해 군에서 거주요건 충족을 자체적으로 확인 후 지급하고 있다.

찾아가는 전입신고팀은 거주지 이전신고 사후확인 문제로 해결하고 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담양군보건소, 아토피 환아·부모 대상 1일 캠프 진행

담양군보건소는 지난 13일 군에 등록된 아토피 환아와 부모 59명을 대상으로 아토피 바로알기 1일 캠프를 진행했다.<사진>

담양군 대덕면 달빛 무림마을에서 열린 캠프는 아토피피부염 관련 환경정식환과 면역 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일상생활 속 자기관리 능력을 증진시켜 환자 및 보호자의 보다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캠프는 아토피 발병 원인과 치료방법, 관리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아토피 바

로알기 교육과 함께 통합건강증진사업 구강 및 영양교육, 건강한 밥상 대통합 체험, 아토피에 좋은 천연바누 만들기, 가을 정취를 만끽하며 감 따기 체험 등을 통해 신체적,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는 시간을 마련했다.

군은 올해 상·하반기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20개 기관 2755명을 대상으로 아토피 예방관리 교육 및 보습제를 지원하는 등 아토피 안심학교를 운영했다.

/담양=서영준 기자 xyj@

12월 개관 앞둔 화순예술인촌 입주 작가 모집

화순군이 오는 12월 개관을 앞둔 화순 예술인촌에서 활동할 입주 작가를 모집한다.

화순 예술인촌은 폐교인 능주 북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한 곳으로 역량 있는 지역 예술인을 발굴해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군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했다.

입주 작가는 3명을 모집한다. 입주 신청 기간은 25일까지다.

입주 작가 모집 분야는 시각예술 분야(평면·입체·설치)다.

군은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다음달 2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부동산 추천 물건

건물

광주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434.44㎡(131.4평) 건물 : 2536.91㎡(767.42평) 지하1층 지상7층 매매가 53억 상무지구 이마트 인근 보증금 1억7천 월수익 2천5백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계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764.8㎡(231.35평) 건물 : 463.54㎡(140.22평) 지상4층 매매가 49억 보증금 4억 월수익 1천9백만 임방울대로 대로변 위치최상

건물

광주 광산구 우산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623.8㎡(188.7평) 건물 : 1642.56㎡(496.87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32억 현 사우나운영중, 세계수영대회 선수촌아파트 앞.

건물

광주 동구 학동 (2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토지 : 770.1㎡(232.95평) 건물 : 1458.86㎡(441.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28억 학동 아이파크 인근 대로변

건물

광주 광산구 신가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900㎡(272평) 건물 : 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 36억 전시광고효과 좋음, 신가재개발부근, 투자적합

건물

광주 광산구 삼계동 (계획관리지역) 토지 : 4556㎡(1378평) 건물 : 2766.44㎡(836.844평) 지하1층 지상3층 매매가 40억 현 요양원 운영중, 빗그런국가 산업단지 인근

건물

광주 남구 주월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306㎡(64.61평) 건물 : 494.4㎡(149.56평) 지상4층 매매가 9억3천만원 삼육고 인근 푸른길도서관 앞 공실없음

"상무지구 · 법원 앞 수익률,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광주 · 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 · 임대 · 급매 전문/ 경 · 공매 전문

경매 추천 물건

공 장

광주 광산구 고룡동 토지 : 1705.3㎡(515.9평) 건물 : 1358.46㎡(410.9평) 감정가 13억1천2백만원 최저가 (70%) 9억1천8백5십만원

주 택

광주 북구 장등동 41번지 토지 : 598㎡(180.9평) 건물 : 263.04㎡(79.6평) 지상3층 감정가 4억7천8백만원 최저가 3억3천5백만원

주 택

광주 광산구 수완동 947번지 토지 : 337.476(102.089평) 건물 : 298.282㎡(90.23평) 지하1층 지상2층 감정가 10억 3천2백3십만원

주 택

광주 광산구 수완동 946-26 토지 : 354.615㎡(107.271평) 건물 : 329.717㎡(99.739평) 지하1층 지상2층 감정가 10억2천6백5십만원

아 파 트

광주 서구 쌍촌동 푸르지오 47평형 감정가 7억2천1백만원 최저가 5억4백7십만원

아 파 트

광주 남구 봉선동 더샵2단지 54평형 감정가 11억2천6백만원 최저가 7억8천8백만원

아 파 트

광주 북구 용봉동 쌍용에가 54평형 감정가 5억6천만원 최저가 3억9천2백만원

아 파 트

광주 북구 운암동 벽산블루밍2차 56평형 감정가 5억3천만원 최저가 3억7천1백만원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